

XML의 ‘닭과 계란’ 문제 해결됐나

Bill Trippe



XML 개발 업계는 아이디어 부족을 겪고 있지는 않다. 어떤 산업을 지목해 보아라. 그러면 그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최소한 한 개의 XML 전략을 지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것(Trading Networks용 RosettaNe)에서 특정한 것(생물공학 시퀀스 마크업 언어, BSML), 특이한 것(얼굴 애니메이션 마크업 언어, 농담이 아니다)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는 광범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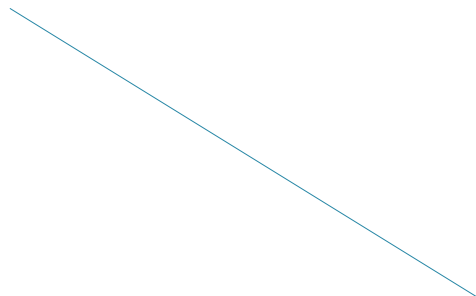
간혹 왜 XML 커뮤니티가 다양성을 가지지 않고 몇 개의 주요 전략에만 주력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에 관해 썼던 적이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조사대상 은행들에게 XBRL을 사용해 수행과 성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XBRL로 인코딩한 재무 보고서는 인간과 기계 모두 판독할 수 있고 전통적인 수동 접근법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효과적인 컴퓨터 분석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FDIC가 XBRL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해당 핵심 요인을 적소에 배치해야만 했다. 어떤 XML 이니셔티브는 핵심 개요와 문서 형식의 정의를 XML과 표시할 데이터 둘 다에 정통한 사람이 작성하고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XML 이니셔티브는 또한 데이터의 XML 버전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요구한다. XBRL은 소프트웨어 벤더의 2/3 가량이 이미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XBRL을 지원하도록 변경했거나 2004년까지 완

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상승세를 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시장 선두 업체인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SAP, 피플소프트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XML 전략을 위해서는 이것을 계승할 “의미 있는 다수”가 필요하다. FDIC의 경우 산하의 모든 은행들이 XBML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이곳의 XBRL 도입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훌륭한 “의미 있는 다수”의 예인 것이다. FDIC의 이러한 접근법은 XBRL을 채택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접근법과 대비된다.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XBRL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왔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 관할 기업들 중에는 의미 있는 다수가 없는 것이다.

메사추세츠 주 콩코드에 본사를 둔 원소스(OneSource)를 보자. 원소스는 판매,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콘텐츠 제공 업체이다. 스탠다드 & 푸어스(S&P)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가치가 높고 다루는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



에 프리미엄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대로 원소스가 제공해온 핵심 요소는 상장 기업들의 재무 보고서였으며, XBRL과 고객의 필요 사이에서 자연적인 적합성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XBRL 형식으로 된 재무 실적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으므로 닭과 달걀의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XBRL이 성공을 거둘 것이긴 하지만 지지할 의미 있는 다수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원소스는 정면 돌파 방법으로 데이터 자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원소스의 XBRL 재무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는 3월에 처음으로 발행돼 2만8,000 미국 상장법인에 관한 데이터를 소개했다. 이후에 원소스는 영국의 모든 상장 기업과 모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켰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77만5,000 이상의 기업들이 등재돼 종업원 수, 수익, 판매 상품 원가 등과 같은 XBRL-태그 필드를 기록하고 있다.

XML의 가치, 그리고 XBRL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모호하지 않게 인코딩돼 다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통해 손쉽게 분리(Isolate), 조작(Manipulate)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XBRL의 경우 재무 모델과 다른 툴들은 이러한 인코딩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던 중요한 분석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

원소스 고객들은 영업 및 마케팅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XBRL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한 기업은 잠재 고객들에 대한 특정 자료(Certain Facts)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특정 제공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ROI 분석 프로세스에 투입시키고 있다. 한 보험 회사에서는 제안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각기 다른 필드 세트를 사용하고 있다. 원소스는 사용자가 XBRL 데이터를 접속, 조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Cognos, Hyperion 같은 하이 엔드 분석 툴에 이르기까지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원소스의 접근법은 독특하지 않다. S&P의 Compustat Div.는 ASCII 데이터 피드와 XML-태그 콘텐츠 모두를 활용해서 이와 매우 유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ompustat의 경우에 XML 데이터는 XBRL 형식이 아니라, 독특한 XML 태그 세트로 이루어진다. 고객들은 Compustat 데이터를 사용해서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해당 포맷을 위한 Proprietary로 끝나고 만다.

원소스의 노력들은 의미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제공해 오고 있지만, 이는 오직 XBRL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소스 데이터 자체(SEC에 직접 제출되는 보고서)는 머지않아 XBRL-태그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형 오피스 버전과 함께 XBRL 툴킷을 출시함에 따라, XML 표준은 보다 넓은 고객층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공개 데이터 소스들이 보다 많이 XBRL에 의존하면서, 금융 업계가 방대한 분량의 유용한 데이터와 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의 결과는 XBRL-인코딩 데이터의 “의미 있는 다수”가 뒷받침하는 훨씬 풍부한 정보의 재무 및 투자자 커뮤니티다.

〈Copyright CMP Media LLC〉

